

# S 스포츠

14 전남매일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지난 10일 오전 함평 챔피언스 필드 실내훈련장에서 열린 신인·육성군 훈련 선수단 미팅에서 박흥식 감독의 질문에 신인 선수들이 손을 들어 대답하고 있다.

## 광주시체육회 김창준 후보에 경고 선관위 사전 선거운동 경고 처분

광주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 후보에게 '경고' 처분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9명중 7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으며 재적 위원과의 과반 찬성으로 김 후보에 대한 경고를 결정했다.

시체육회는 내·외부 인사 9명으로 선관위를 꾸리고 체육회장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체육협회 임원단과 식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창준 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체육회 선관위가 반론권이나 실태조사 하나 없이 사전선거운동을 경고처분을 결본짓고 후보자에게 통보도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은 전형적인 특정후보 편들기 일환"이라며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사적으로 가진 식사모임은 결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고 밝혔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는 전갑수 후보와 김창준 후보가 경쟁하고 있으며 선거는 오는 15일 대의원 투표로 치러진다. /최진화 기자

## 에페 간판 박상영 8개월 만 메달

### 하이텐하임 남자 월드컵 준우승

한국 펜싱 남자 에페의 간판 박상영(울산광역시청)이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에서 8개월 만에 메달 소식을 전했다.

박상영은 11일(현지시간) 독일 하이텐하임에서 열린 남자 에페 월드컵에서 게르게이 시클로시(헝가리)에 이어 2위에 올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상영은 2018-2019시즌이던 지난해 5월 프랑스 파리 월드컵 우승 이후 8개월 만에 국제대회 메달권에 진입했다.

이번 2019-2020시즌엔 2개 대회 만에 첫 메달이다. 그는 시즌 첫 대회인 지난해 11월 스위스 베른 월드컵에서는 10위에 자리한 바 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펜싱의 대표 주자로 우뚝 선 박상영은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첫 국제대회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 남자배구 5회 연속 올림픽 진출 실패

### 세계 랭킹 8위 이란에 겨우 도요형 좌절

20년 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 한국 남자배구가 아시아 최강 이란과 폴셋 접전을 펼쳤으나 아쉽게 벽을 넘지 못했다.

임도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11일 중국 장먼의 장면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아시아 대륙예선 준결승에서 이란에 세트스코어 2-3(25-22 21-25 18-25 25-22 13-15)으로 패했다.

단 1장의 올림픽 본선 티켓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결승 문턱에서 분투를 삼키며 20년 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 꿈을 접었다.

이로써 한국은 2000년 시드니 대회를 마지막으로 5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국제배구연맹(FIVB) 랭킹 공동 24위인 한국은 세계 8위 이란에 객관적인 전력상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선전했지만 마지막 5세트 고비를 넘지 못했다.

한국은 2016년 아시아배구연맹컵 대회 이래 이란에 6경기 연속 패배를 당했다. 이란과 역대 상대 전적은 13승 15패가 됐다. /연합뉴스

# “야구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으로 승리할 것”

## KIA 신인·육성군 25명 2020시즌 훈련 시작 오는 22일까지 식사·휴식 빼곤 운동 또 운동 박흥식 감독, 선수들과 미팅서 ‘절실함’ 강조

“정신이 없긴 하지만 훈련은 재밌습니다.” “자각은 하지 말자고 선수들끼리 다짐했습니다.” “팁 들어온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왔는데 시설이랑 숙소 모두 좋습니다.”

지난 10일 함평 챔피언스 필드. 이날 오전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소집된 선수단 버스를 타고 함평에 도착한 2020시즌 야구 호랑이들은 낯선 환경에 두리번거리면서도 바짝 긴장한 모습으로 프로에서의 첫 훈련에 임했다.

KIA 타이거즈 신인군 육성군의 2020년 훈련이 시작됐다. 신인들의 프로에서의 첫 훈련, 비시즌 동안 자율훈련에 임했던 선수들의 공식 훈련 돌입이다.

이날 소집된 선수들은 2020년 신인 11명을 비롯해 육성군, 그리고 군제대 선수 등 25명이다.

신인은 정해영, 오규석, 유지성, 김양수, 장재혁, 강민수, 최용준(이상 19·투수), 박민(19), 홍종표(20·이상 내

야수), 백현중(21·포수) 이인한(22·외야수) 등 11명이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김현준(23·투수)과 김규성(23·내야수), 그리고 육성군 박서준(21), 이종석(28), 백미카엘(21), 박동민(28), 서덕원(27·이상 투수), 박진두(24), 박정우(24), 민경남(23), 이원빈(21·이상 내야수), 김민수(20), 박정우(22·이상 외야수), 이진경(26·포수)이 훈련에 참여했다.

새해 첫 훈련은 이날 오전 10시50분 실내훈련장에서 선수단 미팅으로 시작했다.

김민우 퓨처스 주루코치가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한 뒤 선수단을 마주한 박흥식 퓨처스 감독이 강조한 것은 ‘절실함’이었다.

박 감독은 “절실함을 가지고 훈련해서 목표를 내다봐야 한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야구 열정을 가져도 될까말까한데 안일한 마음으로 하면 절대 성공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은 여러분이 눈치 보는 곳이 아니다. 정말 즐겁게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하는 곳이다. 물론 예의는 지켜야겠지만 경쟁해야 한다”며 “절대 눈치 보지 말고 즐겁고 활기차게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 감독은 마지막으로 “그냥 노력하면 안된다. 노력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죽기살기로 해야 한다” 말했고 선수단은 “네”라는 우렁찬 대답으로 화답했다.

이화원 대표이사도 이날 훈련장을 찾아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봤고, 선수단과 악수를 하며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다.

신인들은 지난 2개월여간 자율훈련을 해왔다. 구단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각각의 집이 있는 지역에서 개인 PT를 받으면서 몸을 만들도록 했고 일단 첫날은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선수들은 투수와 야수조로 나뉘어 미팅과 워밍업, 러닝,

배팅, 수비훈련, 톱토스(투수), 웨이트, 그리고 야간훈련까지 하루 일과를 소화했다. 배팅연습에서는 신인 중 2차 라운드 박민과 2라운드 홍종표가 KIA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다른 타자들의 타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귀뜸이 전해

졌다. KIA 관계자는 “신인 중에서도 투수들은 스프링캠프에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현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다. 신인들은 캠프에 가면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오버하다다가 다칠 수도 있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25명의 선수는 합숙훈련을 하게 되며 오는 16일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으로 인해 하루 휴식을 취하는 것을 제외하고 22일까지 훈련을 이어간다. 이후 일주일여 휴식을 취한 뒤 다시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다.

박흥식 감독은 “신인 중에서 스프링캠프에 얼마나 합류시킬지는 모르겠다. 여기서 훈련을 지켜보고 합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IA 스프링캠프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되며 선수단은 오는 30일 출발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지난 11일 삼척에서 열린 2019-2020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서울시청과의 경기에서 광주도시공사 송해림(6번)이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 광주도시공사 치열한 접전 무승부

### 서울시청과 26-26

### 강경민 13득점 MVP

광주도시공사가 2019-2020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서울시청과의 경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1일 삼척에서 열린 서울시청과의 경기에서 26-26(14-14 12-12)으로 비겨 승점 1점을 보태 승점 6점(2승2무2패)이 됐다.

시즌 3승에 도전했던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막판 4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강경민이 양팀 통

틀어 가장 많은 득점(13골)을 기록하면서 분전했고 원선필도 5골을 성공시켰으나 김금순이 3차례의 2분 퇴장 끝에 레드카드를 받았고, 원선필도 후반에만 두차례 2분 퇴장으로 코트에서 물러나는 분전 끝에 아쉽게 동점을 허용하며 승리를 놓쳤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초반 리드를 내주는 듯 했다. 4-4에서 서울시청에 연속 득점을 허용하면서 3점의 리드를 허용했다. 전반 19분에는 7-11까지 뒤쳐졌다. 하지만 서아루, 강경민, 최지혜가 잇따라 득점하며 추격을 시작했고, 접전 끝에 14-14로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 분위기는 광주도시공사가 먼저 잡았다. 원선필이 후반 2분 득점으로 먼

저 골문을 열었고 이어 골키퍼 박준은의 선방과 공격 성공이 이어지면서 후반 21분에는 26-22 4점을 앞서갔다. 하지만 서울시청에 연거푸 실점하는 동안 광주도시공사의 슈팅은 빛나지 않았다. 후반 25분 26-26 동점이 된 뒤 양팀은 역전을 위해 서로 골문을 노렸다. 하지만 양팀 모두 추가골에 실패하면서 승패없이 경기가 종료됐다.

13골을 기록한 강경민이 이날 경기 MVP로 선정됐으며 원선필이 5득점, 최지혜가 4득점, 송해림·서아루·김금순·김지현이 각각 1득점을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9일 오후 5시 부산에서 인천시청과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최진화 기자

## 이용대-김기정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우승

### 남자복식 세계랭킹 4위 중국 2-0 제압 금메달

남자복식 세계랭킹 36위 이용대(32·요넥스)-김기정(30·삼성전기)이 2020년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완벽한 부활을 선언했다.

이용대-김기정은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500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결승 세계랭킹 4위 리전후이-류위천(중국)과의 경기에서 2-0(21-14 21-16)으로 승리했다.

이용대-김기정이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18년 11월 마카오 오픈 금메달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국제대회 결승 진출도 마카오오픈 이후 처음이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기점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이후 2018년부터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해지면서 세평계 조를 구성해 국제대회에 뛰었다.

이용대-김기정은 2018년 바르셀로나 스페인 마스터스와 마카오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부활하는 듯했지만, 이후 지난해 말까지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세계랭킹을 끌어 올려 2020

년 태극마크를 회복하고 도쿄올림픽에 도전하려고 했지만,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2020년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은메달을 확보하면서 부활 기대를 키웠다.

이번 대회에서는 16강에서 세계랭킹 3위 가부라 다케사-소노다 게이코(일본)를 2-0(21-15 21-17)으로, 8강에서 용유신-테오예이(말레이시아)를 2-1(19-21 21-15 22-20), 4강전에서 세계랭킹 5위 파자르 알피안-무하마드 라이인 아르디안토(인도네시아)를 2-1(14-21 21-19 21-15)로



이용대-김기정이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500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남자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끼고 결승에 올랐다. 한편 배드민턴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는 여자복식 등 아무도 4강에도 오르지

못했고 여자 단식에 나선 성지현과 광주제고 안세영도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최진화 기자